

'놀이 회식' 확산에 술집·노래방 줄었다

음주 1차서 대부분 마무리... '주52시간 근무' 따라 변화 가속 광주·전남 스크린 야구·실내 양궁장 창업 1년새 45% 급증

광주·전남지역에 '술집'과 '노래방'이 줄어 들고 있다. 회식과 과음 대신 놀이를 찾는 직장인이 증가함에 따라 술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스포츠시설운영 업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저녁 있는 삶' 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같은 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제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광주지역 호프전문점 사업자 수는 25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95명에 비해 3.24%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전년도 2691명에서 올해 2501명으로 무려 7.0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 사업자 수 역시 광주지역은 지난해 1194명에서 올해 1151명으로 3.6% 줄었고, 전남지역은 798명에서 789명으로 1.1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현상은 경기침체와 함께 2차·3차로 이어지던 회식·술자리가 최근 들어 1차 음식점에서 자리를 끝내는 등 음주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술자리 2차·3차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호프전문점과 노래방 매출이 감소하고, 이를 버티지 못한 사업자들이 결국 폐업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광주의 한 호프집 사장은 "회식이나 모임이 간단히 끝나는 등 술자리 자체가 줄어든 것이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요즘 손님들이 와도 예전에 비해 마시는 술의 양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술집과 노래방이 사라지는 것과 달리, 한때 사양길을 걸었던 당구장이 인기를 되찾으며 부활하고 있다. '과음' 대신 당구장 외에도 실내양궁장과 롤러스케이트장,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스포츠가 유행하면서 실내스포츠시설 창업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당구장 사업자의 경우 광주는 지난해 416명에서 올해 463명으로 11.3% 증가, 전남은 646명에서 677명으로 4.8% 늘었다. 실내스크린골프점도 광주는 85명에서 100명, 전남은 140명에서 150명으로 각각 17.65%, 7.14%씩 증가했다.

특히, 스크린야구장과 실내양궁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는 광주가 118명에서 171명으로 불과 1년 만에 44.92% 급증했으며, 전남 역시 86명에서 125명으로

45.35%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관계자는 "과음"의 대명사였던 직장 회식문화가 이전 술을 마시지 못해도 함께 즐기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체임·놀이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경기침체로 음식점·주점 등 요식업 창업의 실패 사례가 속출하면서 최근 인기를 얻는 스포츠시설운영 창업에 나서는 사업자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진석 JS건설 대표는 "술자리 외에 놀이문화가 없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스포츠 체임시설이 늘어나면서 술 보다 놀이를 즐기려는 소비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초기 시설비 투자만 이뤄지면 특별한 노하우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동안 스포츠체임시설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72.76 (+1.22)	↑ 금리(국고채 3년) 2.14 (+0.02)
↑ 코스닥 795.71 (+5.89)	↓ 환율(USD) 1118.70 (-1.30)

떨어질 줄 모르는 물가

유가 상승여파 6월 광주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1.4% ↑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와 공업제품, 교통 물가가 올랐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2로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뛰었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휘발유 10.1%, 경유가 12.5% 오르는 등 석유류가 9.7%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공업제품 물가

1년 전보다 1.9% 올랐고 교통 물가도 1년 전보다 4.3%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 달보다는 3.2% 떨어졌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8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6%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쌀이 37.7%, 고춧가루가 50.5%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가 2.2% 상승했다. 전남에서도 휘발유 9.6%, 경유 11.7% 등 석유류가 1년 전에 비해 9.6% 올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은행 신입행원 40명 "열심히 뛰겠습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2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2개월 연수와 6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40명의 신입행원들을 대상으로 임명식을 가졌다.

신입행원들은 연수기간 동안 창구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연수를 비롯해 창구 친절

교육, 현장체험 연수,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소화해냈다. 또한 광주·전남 소재 광주은행의 영업점들을 일일이 방문해 영업환경을 벤치마킹하고, 지역민에게 광주은행을 홍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생생한 금융 환경을 몸소

체험하며 은행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수습기간을 통해서는 영업점에 실제로 배치되어 한 지점의 일원으로서 창구에서 고객 응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피드백 교육을 병행하며 정식 행원으로 거듭

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함으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멋진 은행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 혁신과 변화의 주체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최재호 기자 lion@

친환경차 미래 어디로 가나

5~7일 DJ센터 '국제첨단자동차기술컨퍼런스'

'2018 국제첨단자동차기술컨퍼런스'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남대 자동차연구소 등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배터리 장착 전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고효율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 관련 정책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토론이 이뤄진다.

올해는 '친환경 전기차' (EV-Electric Vehicle)를 주제로 전 세계 12개국의 대학 자동차연구소, 연구센터, 자동차 회사 및 부품회사의 전기자동차 전문가 13명

이 참여해 시장 현황 및 미래 전망을 제안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인공인 신진 교수와 연구원, 대학원생들이 구두 10편과 포스터 39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주니어 세션도 열린다.

컨퍼런스에는 그린카 전문 전시회인 '국제그린카전시회'도 열린다.

'2018 국제첨단자동차기술컨퍼런스'는 지난 1995년부터 전남대 자동차연구소가 진행해오던 차세대자동차기술 국제 심포지엄을 확대 개편하여 4년째 계속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이달부터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한도 100만원

2금융권 대출억제책 가동... 10월 개인사업자 대출심사 강화

제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이 이달부터 줄줄이 도입된다. 청년·노년층은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

했다.

가계부채 안정 차원에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이달부터, 저축은행·연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심심사를 강화한다.

부동산산업대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한

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연신사가 주택대출을 심사할 때 상환능력과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정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는 대부업체 소액대출이 제한된다.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300만원에

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명 '묻지마 대출'이라 불리는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눈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 부가하는 것이다.

이달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된다. IC등록단말기에서는 신용카드 복제가 안된다.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3분기에는 중소·중견기업에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상당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한다.

/연합뉴스

유탑그룹, 광주 상무지구로 사옥 이전

내일 기념식

유탑그룹이 광주 상무지구에 신사옥(조감도)을 건설, 본사를 옮긴다.

유탑그룹은 오는 5일 광주 서구 치평동 유탑 유톨레스 트윈시티 건물에서 장병래 회장, 최석 회장 등 회사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이전 기념식을 갖는다.

신사옥은 상무지구 내 지상 37층·지하 5층 건물로, ㈜유탑건설,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 등 유탑그룹 계열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유탑그룹은 이날 '2030 비전 선포식'도 개최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